

사기군, 공갈협박군, 권력 세도 주변에서 아부외거짓을 예사로 하며 무위도식하는 인간들을 일컬어 인간 기생충이라고 한다.

그러기에 인간들은 그 어떠한 기생충이든 간에 싫어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인간기생충이 아닌 기생충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나 자신도 그중 한사람이다. 그래서 인지 기생충이란 대명사가 싫지 않다. 어느 장소 어느곳에서든지 기생충이란 단어가 나올때는 귀에 번쩍 들어온다. 모기발톱만한 위치에서 기생충과 더불어 지내오는 중 생각나는 몇 가지 얽힌 이야기를 말하고 싶다.

몇년전 일이다. 그것도 기생충때문에 전북지방에 출장을 갔다가 장항으로 오게 되어 군산에서 장항행 배를 탔다. 배가 출항하여 조금 왔을때 어느 돌팔이 약장사의 열변이 시작됐다. 기생충이라는 단어가 나오기에 더 귀를 기울여 들었다. 서울 영등포에 자리잡고 있는 OO제약회사의 새로운 기생충약이 나왔으니 이약으로 말하면 OO대학의 OOO박사께서 다년간 연구와 임상실험에서 모든 기생충이 100% 구충률을 확인한 약이라고 열변을 토한다.

그가 말하는 OO대학의 OOO박사를 모시고 있는 나로서는 벼락맞은 기분으로 눈을 감고 듣고만 있을 수 밖에 없었다. 어디서 배웠는지 거짓이 절반섞인 기생충의 생활사

에 대한 이야기 하며 개고기먹고 냉수 먹으면 백발백중 촌충에 걸린다고 외치는 소리는 정말 듣기 거북스러웠다. 웃음을 참고 나름대로 결론을 지어 보았다. 어쨌든간에 기생충이 사람에게 틀림없이 무서운 존재라는 사실과 OOO박사는 기생학계의 거물이라는 점은 거짓아닌 사실이라고 생각하며 기생충퇴치 사업의 홍보활동까지 하는구나 하는 억측도 해 보았다.

이러한 광경은 비단 장항선 선박에서 뿐 아니라 지방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었으나 지금은 기생충에 붙었던 그 인간기생충들도 사라진 것 같다.

1965년경 연구실에서 기생충 퇴치 시범부락을 선정하고 수시로 검사하고 투약하는 일을 반복할 때 일이다.

나는 어느덧 그마을 꼬마들한테 똥장사라는 별명이 붙었고 어느집 제사날까지 기억하게 됐으니 꽤나 오래 그동네 출입을 한 것이다. 산에 가야 호랑이를 잡는다는 옛말이 있듯이 마을주민들 생활 환경속에 깊숙히 파고 들어가야만 소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것 같아 나름대로 노력을 해 보았다.

누구든지 기생충 연구사업의 일각에서 일을 해본 사람은 경험해본 일이겠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정말 난처한 일들이었다. 즉 가가호호

방문하여 구걸하다 시피하여 받아 놓은 재료가 쥐가 다 물어갔을때, 실험실습에 사용할려고 집집마다 화장실을 뒤져서 모아놓은 수백마리의 회충을 닭들이 포식 했을때, 사람검사물에서 개회충란이 나올때, 5~6명 가족의 검사결과가 똑같이 나올때, 검사물통 속에 검사물은 없고 미안하다는 편지만 들었을때, 꼭 검사를 해야할 사람이 다른 지방으로 이사 갔을때, 또는 장기 출타했을때 등은 정말로 하는 일에 실망을 느끼게 했다.

어느 봄날이었다. 그날은 수집성이 좋았다. 운반도중 향기를 뽑을가 두려워(당시는 성낭파를 사용했음) 싸고 또 싸서 기차 선반위에 놓고 주위 사람들 코끝만 주시하던 중 어느덧 종착역에 와 보니 나에게는 보물같은 남들은 쳐다도 안 볼 그 멍치는 온데 간데 없었다. 여덟칸 열차칸을 다 뒤져 보아도 있을 리가 없었다. 출산 하러 병원에 갔던 산모가 혼자서 돌아 오는 기분을 짐작할 수 있었다. 너무 깨끗하게 포장한 것이 그만 도선생의 마음을 자극시켰겠지만 그 도선생도 나도 공치는 날이었던 것은 사실이었다. 검사시기를 어길수 없어 꼬마들의 똥장사 또왔네 소리를 되새기며 그 마을로 발길을 옮길때는 두다리에 힘이 없었다.

더욱 어려운 것은 기생충의 성충

을 수집하기란 더욱 어려운 것 같다. 몇년전 일이다.

제주도에서 촌충환자 이십여명에 게 투약을 하고 성충을 찾는데, 모여든 어린이들과 어른들은 물론 일당을 주고 고용한 사람마저 향기아닌 냄새에 못이겨 가버리고 혼자서 체를 흔들며 막걸리 걸르듯 하다가도 하얀 야채 즐기만 보아도 눈이 크게 떠지는데 아기를 업은 할머니가 무엇을 하는지 궁금했던지 닭아와서 한동안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그 속에서 금이라도 나오니까 하며, 보자하니 나이도 젊은 신사가 꼭 그 짓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수파! 하며 허를 찌웃차며 돌아선다.

누가 시켜서 하는 일 같이 생각되면 정말하기 어려운 것이나, 내가 해야겠다는 뜻에서 하는 일이니 누가 뭐라고 하면 어떠며 안 봐주면 어떠랴. 바닷가의 파도 소리와 함께 맑은 공기를 크게 호흡하며 하나 둘 찾아낸 촌충의 머리가 귀엽기만 하다. 십사오년전 제주도 남군 위미리 부락에서 만났던 사상충 환자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그 당시 34세 되는 신체가 건강한 중년 남자였다. 종종 찾아가는 마을이었지만 그 남자는 처음 만났다. 그의 어머님께서 나와 아들과 셋이서 만나줄 것을 간절히 요청하여 아무도 없는 그 집 뒤뜰에서 들어본 사연인 즉(그 남자는 병어리이기 때문에 말을 못함)

결혼을 여러번 시켰으나 한달도 못되어 썩씨가 나가버리니 한심한 일이라며 아무래도 자기 아들의 신(생식기)이 이상한것 같다며 슬그머니 자리를 피해 준다. 말 할 사이도 없이 섣뚱 내보이는 그의 고환은 큰 참외 만큼 커 있었다. 내가 할 일은 사진밖에 찍을 수 없었다.

이 광경을 훑쳐본 그의 어머니는 진찰도 했고 사진도 찍었으니 무엇인지 알 수 있을테니 고쳐만 달라고 울면서 호소하던 그 모자가 어찌나 가엽게 보였던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다음해에 다시 찾아갔을 때는 그 병어리 남자는 세상을 떠났고 그때 찍은 사진만은 지금도 우리 연구실 앞에 붙어 있고 교과서의 사진으로도 게재되어 영원히 남게 됐다.

이곳 저곳 찾아 갔던 그 지방을 몇달 후 혹은 몇년 후 다시 갔을때는 여보시오. 당신이 지난주 주고간 그 약을 당신이 알려준대로 먹었더니 촌충이 한대야 썩 나왔소. 어떤이는 회충이 보재기 채 빠졌소 하며 반가히 대할 때는 호탕한 마음과 내가 또 찾아온 일이 잘 될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어린 소녀의 배속에서 회충이 1,069마리 나왔다는 사실은 돌팔이 약장사도 떠돌던 말이며 한국은 기생충 왕국이라는 말이 이제는 옛이야기로 됐고 학술 재료로 사용할려 해도 재료 얻기가 매우 어렵게 됐으니

국민의 건강도, 크게 좋아진 것만은 사실이다.

이 모든 현상이 기생충학을 전공하는 학자들이나 기생충 퇴치사업을 전담하는 기관은 물론 그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이 구석 구석에서 땀 흘려 열심히 뿌려놓은 수확이 아닌가 생각된다.

오늘도 어느 한 구석에서 내가 하는 이일이 어느 한 분야의 털끝 만큼이라도 밀거름이 된다면 얼마나 다행한 일일까 생각하며 그저 열심히 할 뿐이다.

(필자=연세의대 기생충학교실)

너도 나도 검사하여
숨은 질병 찾아내자

● 한국건강관리협회

